

불기 2549년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 봉축세미나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일시 : 2005년 5월 6일 오후 2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적불명의 불사 이제그만”

전통문화재조각회 ·本社 주최 세미나 성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한봉석)와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아름다움’이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경 스님과 전통문화재조각회원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영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의 ‘불사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오늘의 과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예술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의 ‘신앙으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 정재훈 전통문화예술학교 석좌교수의 ‘환경 불사, 상생의 가르침 담아내기’ 등이 발표됐다. 또 논평자로 최기영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 김방룡 박사(조계종 교육원 상임연구원), 서재영 박사(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가 참여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동남아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돼 불사에 이용되고 있는 국적불명의 불교미술품이나 중국을 모방한 거대불사가 한국불교문화의 전통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사 주관자는 불사의 신앙적·예술적 가치를 인지해, 사찰을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공간으로 꾸며던 우리 전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능인 위상·처우 ‘제도개선’ 필요

주제: ‘불사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오늘의 과제’

정영호(단국대 석좌교수)

한반도에서의 첫 불사(佛事)는 불교가 수용되면서부터 나타났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 불교가 들어온 이래 처음 지어진 초문사(僧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불사의 효시다. 373년 창건된 초문사에는 순도 스님이, 이불란사에는 아도 스님이 주석했다.

이후 불교가 확산되면서 불사 또한 성행해 392년 평양에 9개의 절이 지어졌고, 498년에는 금강사·반통사·금동사 등 많은 사찰이 창건됐다. 백제지역에서는 385년 한산에 사찰이 지어진 것을 시작으로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긴 538년 이후 많은 절이 창건됐다. 지금 절터가 남아있는 곳으로 정림사·미륵사 등이 대표적이다. 불교를 528년에야 공인한 신라에서는 통일 전까지 40여사의 창건불사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개경에는 법왕사·왕륜사·자운사 등 10대사찰이 건립되고, 수

도 이외 지방에도 많은 사찰이 지어지며 전국적으로 불사가 확산됐다.

이처럼 활발했던 불사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위축돼 새로운 사찰의 창건은 멈춘다. 하지만 각 사찰의 보수·중창·복원 등의 건축불사와 조각·탱화불사 등은 다양하게 나타나 선대못지 않은 불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 역사를 통해 불사는 꾸준히 진행됐으며, 국가적인 뒷받침도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 구복과 국가적 차원의 호국에 대한 기원이 불사의 원동력이 됐다.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진 많은 불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이는 기능인이다. 하지만 그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불사를 지휘했던 상란(上院)의 이름만 남아 있어 기능인들은 다반다 종사자 중 한 명에 불과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인에 대한 인식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개선돼, 무형문화재 제도가 도입·시행중에 있다. 무형문화재는 기능보유자·명인 등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세미나는 수입미술품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불사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도원수·대목장·조각장·단청불화·법종장 등 각 방면의 전문인력의 예술성이 계승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 속에 묻혀버린 채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현재의 무형문화재제도는 기능인의 혼과 숨씨를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인에 대한 처우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 된다.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불교조형물들이 기능인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등, 기능인의 위상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기능보유자들을 무형문화재 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에 인센티브를 줌 △기능인이 적은 분야의 전수 교육을 강화할 것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위상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 △전통문화재 보수 등에는 기능보유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할 것 △전통에 어긋나는 조형물이 불사의 전통미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

‘수입불사’ 규제도 급선무

최기영(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정영호 교수의 5가지 선결 과제에 동의하며 몇 가지 사

항을 보충하고자 한다.

우선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장인을 되도록 많이 등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호칭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국보나 보물 등의 물건을 지칭하는 말로 불리기보다는 지방문화재는 민간문화재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인간문화재란 호칭을 쓰게 하면 기능인들이 기댈 책임감과 사명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능인 편중 현상은 전통문화보존차원에서 속히 대안이 마련돼야 할 문제다. 한 국가기능인협회는 자격증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정제교육으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보장되는 분야에 사람이 더 몰리는 현상은 협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

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금으로 짊어야 할 것은 불교조형물 수입의 심각성이다.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국적도 근거도 알 수 없는 수입품이 사찰 경내는 물론 법당 안까지 침범해왔는데, 이로 인한 불교미술계의 교란과 기능인들의 생계문제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자칫하면 불교 전래 이후 1700년간 이어온 불교미술계의 맥이 끊길 수도 있다.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전통예술품에는 기능인들의 피땀어린 정성과 노력이 배어 있다. 이 같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된 불교미술품이 우리사찰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불교계 및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

정토장엄의 심미감 표현이 기본

주제: ‘예술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불사란 정토세계를 구상화한 것이다. 때문에 단순히 불상·불화·불구 제작, 불당 건립 등을 따로 분리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들 조형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배

경이 되는 자연환경과도 어우러질 때 제대로 된 정토세계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다.

정토세계는 <무량수경> 등의 정토 경전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정토의 장엄은 그것을 관(觀)함으로써 보는 이가 심미감을 일으켜 아름다움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상(思想)을 통해 여래의 원심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불사는 심미감에 그치지 않고 신심까지 불러일으켜야만 불교예술의 본질에 접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불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능인은 정토장엄 세계를 관할해야 한다.

경전에 나오는 ‘정중불견(淨中佛見)’이라는 말은 기능인이 어떻게 정토세계를 구상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정중불견이란 “정신을 집중해 삼매에 들면 정중(淨中)에 부처의 행적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정중불견은 구상화의 계기가 된다. 한국 역사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8세기 경 신라사회의 많은 불사는 정토교가 성행했던 시절, 풍부한 감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예술로서의 불사는 정토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정토장엄의 모습에서 심미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불교적 감성을 중요하게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불사를 성취해야만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불교예술은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김상기나 비평가에게도 적용된다.

기능인 권익 보장해야

박찬수(목아불교박물관장)

현업에 종사하는 기능인으로서 느끼는 불사의 문제점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사를 주관하는 창건주나 주지 스님이 전문가에게 자문하지 않고, 소목·장석·단청불화·의식도구 등을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미화적인 균형이 맞지 않고, 전통성·시대성이 모호한 사찰이 건립된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의 사찰을 비슷비슷하게 만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백서 등을 만들어 그에 토대하여 전문가와 창건주가 상의하며 불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화재 보수시 기능보유자의 특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자격증 보유자나 비보유자나 실질적인 불사 참여도는 차이가 없어 자격증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보수제도 개선 및 보완과 종단 스님들의 불

27면으로 계속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0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밑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 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옳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족의 깨닫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르고 있었습니다.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천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실패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使徒)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빠르게 이룰 사람들은 불교인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친척이며 형제들인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권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

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옳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고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들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

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대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었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중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

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도기(만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
농협 751025- 51- 021224 (예금주: 김 팔 영(卍))
(054-633-0108, 010-2465-1357)

시대 초월하는 가르침 담자

불기 2549년 대한민국전문화재조각회 봉축세미나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 일시 : 2005년 5월 6일 오후 2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6면에서 계속

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 셋째, 무분별한 수입불사를 지양해야 한다. 현재 기능적·예술적으로 족보 없는 불교장엄이나 불상이 사찰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전통문화 왜곡이 우려되고, 장인들은 실지리를 잃고 있다. 넷째, 장인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해 전통이 숨쉬는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 우리 예술혼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발원자·동참자·불모 '일체' 돼야

주제: '신앙으로서의 불사, 그 바람직한 방향'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불사라고 하면 사찰을 건축하고, 신앙의 대상인 불상·불화·탑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신심을 수행으로 실천하고 동수정업(同修淨業)하며, 회향하는 모든 정진이 성불을 향한 불사라 할 수 있다. 불사를 조성하는 기능인을 불모(佛母)라 칭하는 것은 불사가 성불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사에는 불사발원자·동참자·불모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불사가 이뤄지기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할 것은 불사의 발원이다. 불사의 발원 없이 어떤 불사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불사를 발원하는 자는 큰 신심을 일으켜야 한다.

<대지도론>에 따르면 신심이 크면 의식과 후회함이 없다. 불사 발원자는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믿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불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을 본원으로 삼아야 한다. 신심을 다해 정성껏 진행되는 불사와 건성으로 하는 불사의 성취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불사를 주관하는 설판제자도 중요하지만 불사에 동참하는 환경의 연기는 더욱 소중하다. 더불어하는 신심이 일치되지 않으면 불사를 원만하게 성취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신심을 일으켜 동수정업의 인연으로 선근을 길러 깨달음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불상·불화·불경 등의 성보는 불보살을 상징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성보는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다. 성불을 목적으로 신앙하고, 실천 수행해 최종목적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보를 조성하는 불모에게는 출가 수행자적 생활과 계율을 엄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불모의 원력은 부처님의 설법을 조카이나 그림으로 담아내 보고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불사로서 불법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 기법으로 증생의 근기에 따라 느끼고 교화될 수 있는 방편으로 부처님 설법의 현장을 현현시키는 일이므로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앙심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불사는 영리나 명예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체 상을 떠나 무욕의 마음으로 추진돼야 한다. 불사 주관자와 동참자는 불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 불모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불모는 투철한 신앙심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불사에 임해야 한다.

교학·기법·창작 조화를

김방룡(조계종 교육원 상임연구원)

논평

불사발원자·동참자·불모의 세 주체가 신심에 바탕해야 제대로 된 불사성취가 가능하다는 법산 스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불사를 발원하고

정영호 교수 문화재 보수 기능인 참여 의무화

홍윤식 교수 제작·감상·비평가 안목 고양 관건

동참하는 자의 원력과 신심을 담아내는 것은 불모의 역할이다. 여기에 더하여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의미를 법답게 담아내는 것 또한 불모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교학적 고증과 전통기법 전수를 전제로 새롭게 창조된 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불자들이 자신의 신행과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바른 신행이 이뤄지고, 그에 맞춰 적절한 불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신행과 불사는 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전통사찰의 대형불사는 불자들의 보시뿐 아니라 국고 지원에 의해서도 이뤄진다. 그렇다보니 문화재적 가치가 우선하고 신앙적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교의 신앙적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진정한 문화재적 가치는

타고 발전사이에 집스러운 왜식정원이 꾸며져선 안 된다. 중국을 본받아 거대불상을 세우는 일 또한 문제다. 거대화는 자연과 조화를 이뤄온 전통적인 불사의 정신에 어긋난다.

전통적인 불사의 정신에 어긋나기는 사찰 영역의 환경파괴도 마찬가지다. 해인사 개발 시도, 한 수행단체의 문경지역자연과 등의 예에서 보듯 사찰 영역과 관련된 불사는 신중해야 한다. 불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합리적인 설계계획에 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찰 환경을 조성할 때는 화재대비시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찰은 전통적으로 사찰 건물 주위에는 화소(火巢) 구역을 설치하고, 외곽 담을 세워 산불을 최대한 차단했다. 또 절 가까이에는 낙엽, 역새, 소나무를 제거했다. 익산 미륵사에는 개울이 절 사방을 흘러 화재 방어진이 되게 했고, 정림사는 담장을 높게 쌓았다. 이 같은 지혜를 배워 사찰의 종합적 환경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태적 담론 선도 바람직

서재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논평

오늘날 한국사찰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서로 다른 지향성이 충돌하고 있다. 신행공간의 확장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대립과, 인위적 건설과 자연의 보존이

라는 대립이 그것이다. 이는 전통사찰이 신행공간이자 문화재며, 자연경관이라는 다면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불사는 해당사찰이나 불교계뿐 아니라 종교의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사찰은 건축이라는 인위성을 적절히 은폐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뤄왔다. 선조들은 장대한 구조물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건물들을 지어 사원이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예술을 연출했다. 세계화대를 지향하는 불사는 한국전통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작용을 낳기만 한다.

한국불교는 최근 환경문제를 통해 국가적 의제를 제기하고 전국적 거대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 전환에는 높은 자기도덕성이 요구된다. 한쪽으로 사찰을 확장하고, 개발 대가를 보상금을 챙기며 환경과 자연을 외칠 수 없다.

한국불교가 보여주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불교 스스로 생태적 문화의 삶 의 양식을 선도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견지에서 불사에 대한 고민은 단지 사찰의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도덕성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고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는 불사, 시대의 정신을 인도하는 불사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

정리=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인공조경 지양·자연미 살려야

주제: '환경불사, 상생의 가르침 담아내기'

정재훈(전통문화예술학교 석좌교수)

한국사찰은 자연과 동화되고,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오대산 동대의 만월형상에는 관음진신 일만이 상주하고, 북대의 상왕산에는 석가여래를 수반으로 오백나한이 상주하며 상대의 풍토산에는 비로자나불을 수반으로 일만의 문수보살이 공양했다'는 기록은 산이 곧 불(佛)의 세계임을 보여준다.

또 한국사찰의 불상은 거대하지 않아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 또 지나친 기교를 배

제한 얼굴에는 자연스러움이 넘치며, 사천왕 얼굴은 낙천적이고 인자하기까지 하다. 이처럼 한국의 사찰에는 자연스러움과 평안함이 있다. 광대함에 치우쳐 자연과 인간을 억누르는 중국 사찰의 광대상이나, 분노하는 모습을 한 금강역사상이 질문에 배치된 일본사찰과는 다르다.

하지만 근래 들어 한국사찰의 원형을 위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하나는 왜식조경이다. 왜식조경이란 향나무·편백·주목 따위의 상록수를 인공적으로 전정(剪定)해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당 마당에 부처님께 예불하는 공간으로,



대한불교 본원종

총 정 강무구 사서실장 손무공
부총정 최대종 김동광

원로의장 원로의원

유법용 전국당담심봉
변정송 파명대
이승파 김대성
박보명 김대성
이관곤 이관대

감찰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연수원장 문화원장

김대성 정대련 최대황 박보경 김대천 박우담

총무원장 이대화

총회 의장 김대운 조혜원
총회 부의장 김대연
총무 부장 김만혁
규정 부장 강만공
사회 부장 박명진
포교 부장 한법성
교화 부장 정대능

부산 경남 총무원장 박지우
부산 경남 부총무원장 김현담 조혜원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FAX 02)379-2746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 지 대 화

사 부 대 중 일 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대한불교 본원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백운산 성광사

주 지 대 성

신도회장 대각심

신도회총무 오철근

사 부 대 중 일 동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437
TEL 033)661-5308

대한불교 본원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기린산봉 약천사

주 지 법 성

사 부 대 중 일 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17-4
TEL 063)282-3024

대한불교 본원종 중앙총회의장 주석사찰 청수산 선불사

주 지 대 운

신도회장 신장호

사 부 대 중 일 동

■ 경기 오산시 수정동 402
TEL 031)374-3413

대한불교본원종 중앙총회 부의장 주석 사찰 성불사

주 지 혜 원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서구 신평1동 294-7
TEL 051)292-6818,294-1800

대한불교조계종 영장산 봉국사

회 주 혜 성

주 지 효 관

초하루 인등법회(음력 1일), 보름 기도법회(음력 15일)
지장재일 천도법회(음력 18일), 관음재일 참선법회(음력 24일)
어린이법회(초, 중, 고생) - 매주 일요일
■ 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 216-2번지
TEL 031)755-0329/721-0329 / FAX 031)722-3761